

작품 내용

제 목	나의 꿈은...
내 용	나의 꿈은 아직 모른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넌 뭐가 되고 싶니?” “어... 어... 저는 음...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나의 꿈을 대신 추천해 주기 시작했다. “의사 어때?” “아니, 아니! 재는 의사보다는 간호사지!” “아니아~ 재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화가! 화가 어때?” “아니지! 요즘은 크리에이터가 대세지~” 선생님께서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시자 아이들의 아쉬운 탄식이 쏟아졌다. “하루아, 아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면 이것저것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선생님께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네, 선생님. 한번 도전해 볼게요.”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친구에게 꿈을 물어보셨다. 친구들의 대답을 듣고 있으니 나처럼 꿈이 없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친구가 말했던 ‘크리에이터’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한번 도전해 볼까?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해 보라고 말씀하셨잖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동물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밤낮없이 영상을 편집했다. 영상을 완성한 뒤 유튜브에 올렸다. 다음 날 학교를 다녀오자마자 내가 올린 영상을 확인했다. 조회수에는 ‘30’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숫자처럼 느껴졌다. 댓글에도 재미있다는 말과 칭찬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댓글 하나가 있었다. ‘중간에 우리 뽀빠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답글을 달았다. ‘네? 무슨 말씀이지요?’ 3분쯤 뒤 다시 댓글이 달렸다. ‘이거 영상 안 내리시면 신고할게요.’ 나는 순간 겁이 났지만, 정말 사진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 ‘이거 저희 강아지 사진인데요?’ 그러자 그 사람이 바로 답했다. ‘그럼 신고할게요~’ 나는 애써 그 댓글을 무시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별다른 연락이 없자 점점 안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약 세 달이 지난 어느 날,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저 그 뽀뽀 사진 주인인데요. 마지막 기회예요.’

메일을 보는 순간 이번에는 정말 사진의 주인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가는 정말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다. 나는 급히 사과문을 작성해 보내고 영상을 내렸다.

그 일을 겪은 뒤 한 달 정도 유튜브를 쉬었다. 그러다 다시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남의 사진을 모아서 영상을 만드는 대신, 내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그렇게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상황극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만든 상황극 영상이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영상을 올릴 때마다 조회수가 빠르게 늘어났고, 학교에서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댓글창에는 재미있다는 말과 아이디어가 좋다는 칭찬이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팬 계정까지 생겼다. 처음에는 정말 신났다.

‘나한테도 팬이 생기다니!’

그런데 팬 계정을 자세히 보다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계정은 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있었는데, 어떤 영상은 내 원래 영상보다 조회수가 더 높았다. 심지어 구독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내가 만든 영상인데 왜 나보다 더 인기가 많지?’

순간 질투가 났다. 고민 끝에 나는 그 팬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죄송한데요. 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실 때 출처를 남겨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겉으로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 영상인데 왜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잠시 뒤 팬에게 답장이 왔다.

‘네! 당연하죠.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저는 하린님 영상이 너무 좋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 답장을 읽는 순간 조금 부끄러워졌다. 예전에 나도 다른 사람의 강아지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사진 한 장인데 뭐 어때?’ 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직접 만든 영상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사용하니, 그때 뽀뽀 사진 주인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팬에게 다시 답장을 보냈다.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저도 더 조심하려고요. 제 영상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뒤로 나는 영상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음악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다.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었고, 꼭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먼저 확인했다. 신기하게도 하나하나 직접 만들기 시작하자 오히려 영상에는 나만의 색깔이 더 많이 담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 만들 때보다 힘은 더 들었지만, 완성된 영상을 보면 훨씬 뿌듯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다시 우리 반 친구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혹시 꿈이 바뀌었거나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긴 사람 있니?”
 친구들이 한 명씩 손을 들었다. 나도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손을 들었다.
 “하린이는 어떤 꿈이 생겼니?”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재미있어할 이야기를 만들고, 제 생각을 표현하는 일이 좋아요.”
 선생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럼 그것도 아주 좋은 시작이네.”
 그 말을 듣고 나도 따라 웃었다. 예전의 나는 꿈이 없다는 사실이 창피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자신의 꿈을 알고 있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꿈은 어느 날 갑자기 정답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저것 도전해 보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 실수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조금씩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누군가 지금 다시 나에게 “넌 뭐가 되고 싶니?”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아직 찾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씩 도전해 볼 거예요.”
 나의 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꿈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는다. 나의 꿈을 찾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나의 꿈의 일부일 테니까.